

## 미국장로교 제 222 회 총회장 후보인 데이빗 파커(David Parker) 장로의 출마 선언

노스캐롤라이나 주 스테이스빌에 소재한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Statesville, NC)를 섬기는 사역장로(Ruling Elder)인 데이빗 파커는 2012 년에 살렘노회(Salem Presbytery)의 노회장으로 섬겼다. 그는 전에 살렘노회의 실행위원회에서 활동해 왔고 위원장으로도 섬겨 왔다. 그는 2010 년에 미니아폴리스에서 열린 제 219 회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였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민주당 의장으로 섬겼고, 미첼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두 차례 섬겼으며, 아이어델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섬겼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파이 베타 카파(Phi Beta Kappa)에 입회된 재원으로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이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랄리에 소재한 화이트기념교회(White Memorial Church, Raleigh, NC)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장로교인(a "cradle" Presbyterian)으로서 아내와 함께 3 명 자녀와 1 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 그는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제 222 회 총회에 살렘노회를 대표하는 총대로 선출되었다. 살렘노회는 2015 년 11 월 7 일에 열린 노회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그를 제 222 회 총회의 총회장 후보로 추천하였다.

2016 년에 열릴 미국장로교 제 222 회 총회의 총회장에 사역장로로서 입후보하면서 저는 총회장의 역할을 라인홀드 니이버의 훌륭한 기도를 본 따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총회장은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계속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평정심(serenity)과, 730 여 일 동안 미국장로교 안팎에서 "평화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예언자적 목소리가 될 용기(courage)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wisdom)를 소유하여야만 합니다!

730 여 일의 임기 중 7 일 동안, 총회장은 제 222 회 총회의 사회를 보며 의사를 진행할 의무들("gavel duties")을 가집니다. 저는 주 모임들과 전국 모임들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민주당의 의사를 진행하면서, 살렘노회의 노회 모임들에서 의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과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의 모임들에서 자원자로서 의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35 년 이상을 변호사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그룹 모임들에서 의사를 진행하면서 로버트 룰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각 모임이 가지는 정신으로 균형

잡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힘든 일은 바른 정신으로 행해진다면 재미있는 것이 될 수 있고 . . . 심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약간의 유머는 심지어 장로교인들에게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총회장에게 있어서 기회이자 도전이 되는 때는,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전하는 대사로서 연설하든지 혹은 미국장로교의 모임들에 참여하고 일을 하든지, 한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 내 다른 영적 기관들과 함께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이고 지적이고 재정적인 능력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히쓰 레이다(Heath Rada) 현 총회장이 이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포틀랜드 총회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총회 후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비전의 시행을 통해 완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향후 5년을 넘어서는 미국장로교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적어도 25년부터 50년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장로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비전은 이머징 처치(emerging church)와 기존의 교회 모델들과, 선교적 교회 모델들(missional models)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peacemakers)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거버넌스(governance, 정치 행위)와 우리의 리더십 모델들은 미국장로교가 이 비전을 분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어떻게 조직되든지 그리고 총회의 의사를 진행하는 우리의 모델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교회가 가지는 총체적 선교와 위대한 목적들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한 계속적이고도 의식적인 교육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그들로부터 배우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self-governance)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 우리가 곧 바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엄청난 영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데, 우리에게는 1,600,000 명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교인들과, 9800 개의 교회들과, 21,000 명의 교역장로들과, 평신도 섬김이 지도자들(servant-leaders)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35,000 명의 사역장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교 소속 신학교들과 대학들과 사회봉사기관들과 수련원들과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더하면 우리에게는

미국장로교 안에서의 활동적인 사역과 미국장로교를 넘어서 더 큰 교회와 사회를 위한 훌륭한 도약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역장로들(Teaching Elders)의 인도를 따라 배우는 장로교인들("learning Presbyterians")로서 우리는 TV 네트워크와 소속 정당 그리고 (너무도 자주) 종교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갈수록 분할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면서 평화롭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자신들의 소명을 이성적으로 기도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안전한 만남의 자리가 세상에는 매우 드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화해의 선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로교인들에게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입니다.

활동적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인구분포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한 인종 혹은 한 언어 혹은 한 민족이 전체 구성원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갈수록 다양화되는 가는 미국 사회 속에서 만인제사장직을 지향하는 우리의 선교(our mission as the priesthood of all true believers)가 실패로 끝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처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단순히 신실한 식민지들이라기 보다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곧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움직여만 합니다. 우리의 몸된 존재성(our corporate being)을 위협하는 현재의 도전들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교회에 있는 회중석들과 성가대석들과 설교단들에서 우리의 인구분포 성향과 세상에서의 화평케 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총회 전에 혹은 총회 중에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거버넌스에 대해, 동사-총회장(Co-Moderator) 혹은 부총회장 리더십 모델들에 대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미국장로교의 역할을 위한 비전에 대해 그들의 생각들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